

K팝, 내년 '그라미 어워즈' 후보 불발...시저 9개 부문 최다 지명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뉴진스 등 노미네이트 후보 불발 모네트 7개 부문 후보...스위프트·사일러스 등 6개 부문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 내년 행사에서 K팝이 후보로 경합하는 걸 볼 수 없게 됐다. 그라미상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제66회 그라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K팝은 단 하나도 올라지 못했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등 제 63회부터 제65회까지 해당 시상식에 3년 연속 노미네이트됐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번엔 일곱 멤버 각각 자신의 곡을 출품하며 도전했으나 지명받지 못했다.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라이크 크레이지'와 '세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한 지민과 정국의 후보 지명이 조심스레 예측됐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또 '핫100'에 동시에 3곡을 올린 걸그룹 '뉴진스'가 제너럴 필즈(본상) 중 하나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Best New Artist)' 부문에 노미네이트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 매체 '롤링스톤' 등으로부터 나왔으나 이 팀 역시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다.

이밖에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두 개의 앨범을 올린 '스트레이 키즈'를 비롯 미국 스타디움 콘서트를 성사시킨 '트와이스', '큐피드'로 '핫100'에서 호성적을 거둔 '피프티 피프티' 등 여러 K

팝 팀들이 '그라미 어워즈'에 출품했으나 심사위원들은 이를 외면했다.

USA투데이는 이번에 후보자 명단 발표 직후 "2024 그라미 어워즈에서 핑크, 샘 스미스, K팝이 제외됐다. 또 누가 냉대를 받았느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4개의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그라미 어워즈는 명백한 경쟁자 몇몇을 간과했다"면서 "K팝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장르 중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그라미 투표자들은 놓쳤다"고 지적했다.

또 "방탄소년단 외에도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 등의 앨범이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고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면서 "그라미 어워즈가 일반 카테고리에서 K팝 장르를 무시한다면, 전문분야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또 다른 대중음악 시상식들인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AMA),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s)가 K팝 분야를 신실한 것을 감안해서 짚은 부분이다.

이와 함께 USA투데이는 트레이시 챔피언의 '패스트 카'를 리메이크해 호평을 받았으나 최우수 컨트리 솔로 연주 부문에만 지명된 루크 콕스, 네 번째 정규 앨범 '글로리아'로 호평을 받았으나 이번엔 한 부문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샘 스미스, 아홉 번째 스튜디오 앨범 '트러스트폴(Trustfall)'로 음악성을 인정 받았으나

이번엔 후보에 오르지 못한 핑크(PINK), 앨범 '-(Subtract)'으로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부문 후보에만 지명된 에드 시런, 자신은 후보로 지명되지 않고 오직 '라스트 나이트'의 송라이팅 카테고리 후보 지명만 바라보아야 한 모건 월렌 등도 이번 후보 지명에서 외면당한 뮤지션들로 꼽았다.

이번 '그라미 어워즈'에서 최다 후보 지명자는 시저(SZA)다. 9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그녀의 앨범 'SOS'는 10주 동안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빅토리아 모네트가 7개 부문 후보 지명으로 뒤를 이었다. 테일러 스위프트, 마일러 사일러스, 빌리 아일리시, 올리비아 로드리고, 존 바티스트, 보이저니어스, 브랜드 클락 등이 각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미국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바비' OST는 7개 부문에 11번 후보로 지명됐다.

최고 영예인 '올해의 레코드'를 두고는 시저 '킬 빌', 테일러 스위프트 '안티-히어로', 마일러 사일러스 '플러워스' 등이 경쟁한다. '올해의 앨범' 역시 시저, 스위프트, 사일러스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다. '베스트 뉴 아티스트' 부문은 그레이시 아브람스, 아이스 파이시가 유력 후보다. 이들 네 개 부문이 4대 제너럴 필즈, 즉 4대 본상으로 통했으나 이번엔 본상을 두 개 더 추가한다. '비클래식 올해의 작곡가'(Songwriter of the Year, Non-Classical), '비클래식 올해의 프로듀서'(Producer of the Year, Non-Classical)다. 이에 따라 그라미 본상은 총 여섯 개가 됐다.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등이 속한 음악 전문가 단체인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주최해온 그라미 어워즈는 현지 최고 권위를 인정 받는다. 미국이 팝의 본고장인 만큼 세계 대중음악계 시상식의 성지로도 통한다. 축음기의 모양을 딴 트로피가 상징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그라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그라미 슬램' 달성을 위해서는 '그라미 어워즈' 수상만 남았다. 방탄소년단을 비롯 한국의 대중음악 가수

중 해당 상을 받은 이는 없다.

앞서 그라미 어워즈 클래식 부문에선 한국인 수상자가 나왔다. 지난 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클래식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을 받았다. 음반 엔지니어 황병준 사이드미리코리아 대표는 2012년 클래식 부문 최우수 녹음기술, 2016년 베스트 합창 퍼포먼스 부문 등 두 차례 수상했다. 2021년 한국계 미국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베스트 클래식 인스트루멘탈 솔로(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상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내년 2월4일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타컴 아래에서 열린다.

영 전설 비틀스, 54년 만에 오피셜 싱글 1위



왼쪽부터 존 레논,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폴 매카트니. 비틀스 멤버들.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스(Beatles)'가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Now And Then)'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비틀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나우 앤 덴'은 오피셜 앨범 톱100 최신 차트(10~16일)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지난 주 목요일에 발매 돼 음원 스트리밍·판매 성적이 단 10시간 동안의 기록만 반영돼 지난 주 42위로 데뷔했던 이 곡은 단숨에 41계단을 뛰어 올라 정상을 차지했다.

비틀스는 이번 1위로 영국 차트에서 각종 신 기록을 냈다. 우선 첫 번째 1위곡과 최근 1위곡 사이의 기간이 가장 긴 뮤지션이 됐다. 비틀스 차트 1위곡은 60년6개월 전이다. 1963년 5월 '프롬 미 투 유(From Me to You)'가 1위에 올랐다. 미국 로큰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올 슈업(All Shook Up)'(1957)과 '잇즈 나우 오어 네버(It's Now or Never)'(2005) 재발매 사이로 기록했던 첫 1위와 마지막 1위 사이 47년6개월의 차이를 훨씬 넘겼다.

또 비틀스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서 54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기록도 썼다. 해당 차트에서 이전 비틀스의 마지막 1위곡은 1969년 '더 발라드 오브 존 앤드 요코(The Ballad of John and Yoko)'였다.

비틀스 이전에 1위 간격이 가장 길었던 뮤지션은 영국 가수 케이트 부시(Kate Bush)다. '위더링 하이츠(Wuthering Heights)'(1978)와 '러닝 업 힐(Running Up That Hill)'(2022) 사이의 간격 44년을 넘겼다. 그런데 '러닝 업 힐'은 작년 신곡이 아니다. 1985년 발매된 곡인데 작년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삽입되면서 발매 37년 만에 1위에 올랐었다.

이와 함께 비틀스는 이번 '나우 앤 덴' 1위로 18번째 1위 싱글을 보유하게 됐다. 21개의 1위곡을 보유한 프레슬리를 잇는 기록이다. 영국 인으로는 가장 많은 1위 싱글 보유 기록이다.

또 비틀스는 영국 차트 1위 싱글을 기록한 가장 나이 많은 밴드가 됐다. 개별 뮤지션으로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 돌풍

는 링고 스타가 83세로 2위, 폴 매카트니가 3위다. 영국 차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때 1위를 차지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톰 무어(1920~2021) 경(卿)이다. 99세 때인 2020년 가수 마이클 불과 함께 부른 '유 윌 네버 워크 얼론(You'll Never Walk Alone)'으로 1위를 차지했다.

비틀스 멤버 네 명이 모두 참여한 신곡이 나온 건 1996년 '리얼 러브(Real Love)' 이후 27년 만이다. '나우 앤 덴'은 비틀스 멤버 존 레논(1940~1980)이 1977년 피아노 반주 위에 목소리를 얹은 미완성 데모곡이었다. 1980년 레논 사망 이후 1994년 그의 아내 오노 요코가 남은 비틀스 멤버 매카트니, 고(故) 조지 해리슨(1943~2001), 스타에게 해당 곡이 담긴 데모 테이프를 넘겼다.

1995년 3월 비틀스 멤버 4명과 프로듀서였던 영국 밴드 'ELO(Electric Light Orchestra)'의 제프 린은 새로운 연주와 코러스를 녹음해 데모와 함께 믹싱했으나 발매를 포기했다. 몇몇 구간에서 피아노 반주가 레논의 목소리를 묻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두 소스(Source)를 분리하는 기술의 한계로 작업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이 곡은 기술의 발달로 마침내 빛을 봤다. 2021년 피터 잭슨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비틀스: 갯 백(The Beatles: Get Back)'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디오 복원 방법(딥러닝)을 찾게 됐다.

마침내 지난해부터 남은 두 비틀스 구성원인 매카트니와 스타는 '나우 앤 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깔끔하면서 선명하게 분리한 레논의 목소리에 1995년 녹음한 해리슨의 일렉트릭-어쿠스틱 기타 연주, 새로이 녹음한 스타의 드럼과 매카트니의 베이스-슬라이드 기타-피아노 연주 그리고 두 멤버(매카트니-스타)의 코러스 목소리를 담았다. 30대 레논의 목소리, 50대 해리슨이 연주한 기타 소리, 80대 매카트니-스타의 연주-목소리가 시공간을 초월해 한데 어우러진 것이다.

오피셜 차트 측은 "비틀스가 마지막 싱글 '나우 앤 덴'으로 수많은 기록을 경신하고 전설적인 면모를 확고히 했다"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매력이 발휘되는 놀라움을 선사했다. 엄청난 수의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바이닐 싱글의 판매가 이뤄졌다. 비틀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라는 의심이 없었다면 이번 주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정정국)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K팝 솔로 새 기록을 연이어 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 3일 발매한 첫 솔로 음반 '골든(GOLDEN)'이 오피셜 앨범 톱100 최신 차트(10~16일)에서 3위로 데뷔했다.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1989(테일러 버전(Taylor's Version))'(1위), 영국의 전설적인 브릿팝 밴드 '오아시스'의 '더 마스터플랜(2위)'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역대 K팝 솔로 아티스트 앨범 중 최고 순위다. 해당 차트에서 이전에 가장 높은 순위를 보유했던 K팝 솔로 음반은 정국의 팀 동료인 슈가(어거스트 디)가 'D-2'로 기록한 7위였다. 슈가의 다른 앨범 '더 데이(D-Day)'가 41위, RM의 '인디고(Indigo)'가 45위, 에이훈의 '책 인 더 박스'가 67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팀으로서 이미 영국 오피셜 앨범 톱100에 5장의 앨범을 올렸다. 특히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2019), '맵 오브 더 솔 : 세븐(Map of the Soul: 7)'은 각각 1위를 찍었다. '골든'은 이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싱글차트 6위로 데뷔...톱10 네 번째

번 주 '앨범 다운로드 차트'에선 1위, 앨범 세일즈 차트에선 4위에 오르는 등 세부 앨범차트에서도 선전했다.

이와 함께 정국은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에서도 기록을 써내려갔다. '골든'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가 싱글차트 톱100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국은 지난 7월14일 공개한 첫 공식 솔로 싱글 '세븐(Seven)(feat. Latto)'(3위)을 시작으로 9월 공개한 두 번째 솔로 싱글 '3D(feat. Jack Harlow)'(5위), 지난달 공개한 호주 래퍼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영국 래퍼 센트럴 시(Central Cee)와 협업한 '투 머치(TOO MUCH)'(10위)에 이어 4개월 동안 네 곡을 톱10에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솔로 가수 최다 톱10 진입 노래 수 보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정국이 속한 방탄소년단이 오피셜 싱글차트 톱10에 올린 곡 수와 같다. 방탄소년단도 '다이 너마이트'(3위), '다이프 고즈 온'(10위), '버터'(3위), 브릿팝 밴드 '홀드플레이'와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3위) 등 네 곡을 톱10에 올렸다. 정국은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에 그룹과 솔로로 4곡씩 진입시킨 유일한 한국 가수가 됐다.

또 지난해 발표한 미국 프로듀서 겸 싱어 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Feat. Jung Kook of BTS)'(41위)까지 합하면 통산 다섯 곡을 오피셜 싱글 차트에 진입시켰다.

이와 함께 순위권에서 벗어났던 '세븐'이 '골든'에 실리면서 오피셜 싱글 톱10에 35위로

재진입했다. 총 11주 진입이다. 지난 주 58위였던 '3D' 역시 '골든'에 실리면서 45위로 뛰어올랐다. 총 6주간 진입이다. '투 머치(TOO MUCH)'는 지난 주 28위에서 14계단 하락한 42위를 차지했는데 3주 연속 랭크됐다.

이에 따라 정국은 이번 주 오피셜 싱글차트 톱100 50위에 총 4곡을 동시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별개로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DJ 겸 디지타너 페기 구의 '(잇 고즈 라이크) 나나나(It Goes Like) Nanana'는 이번 주 싱글 차트 톱 100에서 65위를 차지하며 21주 연속 진입했다. 페기 구가 지난 9월 발매한 새 싱글 '아이 빌리브 인 러브 어게인(I Believe In Love Again)'은 다음 주에 차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NOW AND THEN)'이 이번 주 싱글차트 톱100 1위를 차지했다.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불멸의 히트곡 '올 아이 윌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40위로 재진입하며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역주행을 시작했다.

한편, '골든' 프랑스음악협회(SNEP)가 발표한 최신(11월10일 자) 톱 앨범 차트에 1위로 진입했다. 또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지난 10일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위클리 톱 솔로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븐'은 3위로 반등하는 등 글로벌 인기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위클리, '힘센여자 강남순' OST 참여... '아이 워너 플라이' 발매

통통 튀는 멜로디 라인과 무게감 있는 비트로 귀를 사로잡는 곡

그룹 '위클리(Weekly)'가 JTBC 토일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OST에 참여했다.

11일 OST 제작사 모스트콘텐츠에 따르면, 이날 오후6시 음원 사이트에 위클리가 부른 '힘센여자 강남순' OST Part.6 '아이 워너 플라이(I Wanna Fly)'가 발매된다.

'아이 워너 플라이'는 통통 튀는 멜로디 라인과 무게감 있는 비트로 귀를 사로잡는 곡이다.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대의를 위해 힘쓰는 강남 세 모녀의 짜릿하고

통쾌한 파워를 세련된 사운드로 해석했다.

한편 '힘센여자 강남순'은 선천적으로 놀라운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마약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이 드라마는 백미경 작가의 '힘센여자 도봉순'(2017) 세계관을 확장했다.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2019)의 김정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배우 이유미·김정은·김혜숙·옹성우·변우석 등이 출연한다.



뉴스시